

순창군, 섬진강 들녘 '팝아트'로 물들인다

'청정 순창' 표현한 논바다 그림으로 완성...진기한 풍경 연출
국내 최장 체계산 출렁다리서 조망...관광객 유치 시너지 기대

순창군이 섬진강 상류지역인 적성 고지리 논을 한 폭의 캔버스 삼아 대형 그림을 완성하는 이색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눈에 그림을 그리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대미술가의 도움을 받아 그림 도안을 마무리했다.

그림 도안(조감도)은 청정지역 순창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경관과 농촌 지역의 평화로움을 그림에 담아냈다.

특히 군이 추진하는 이번 작업은 눈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눈이 캔버스로 변하는 진기한 풍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적성 고지리는 순창의 3대 명산인 체계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섬진강 물줄기가 S자 형태로 굽이지며 황금들녘으로 감싸 안고 있는 구역이라 등산객 사이에 경관 좋

기로 정평이나 있다.

군은 하반기에 완공될 국내 최장 출렁다리(270m)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초부터는 조성을 시작해 일반버 이양기 식재 후 측량과 깃발 꽂기, 일반버 숨어내기 과정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유색 벼를 도안 별로 심어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7월 그림이 완성될 들녘에서 순창우음 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논두렁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순창 적성면은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 조성을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 점 마을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배 팝아트 조성도 볼거리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5~6세기 가야세력·문화권 실제 밝혀질 핵심 유적 남원 청계 고분군 발굴 조사 본격 착수

5~6세기 전북 동부 가야세력 실체와 가야 문화권 확장 양상을 밝히는 데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는 남원 청계 고분군 발굴이 시작됐다.<사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8일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 8-7번지 고분군 발굴 현장에서 조사단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인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조사·정비 사업 일환으로 발굴이 이뤄지는 청계 고분군은 지난해 3월 호남 가야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 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다.
청계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이 있는 남원 북동부 운봉고원은 지리산 기슭으로 경남 함양과 가깝다. 청계 고분군 인근에는 전북기념물 제138호인 월산리 고분군도 존재한다.

청계 고분군은 전북대박물관과 해원문화재연구원 등이 지표조사를 했으며, 무덤 20여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봉분은 대체로 지름이 20m 이상인 타원형인데, 봉토 정상과 사면에 석곽(石槨·돌덧널) 일부가 노출됐을 정도로 훼손과 도굴 피해가 심하다.

연구소는 아산 남쪽 말단부를 10월까지 조사해 고분 구조와 조성 방법, 운영 시기를 알아낼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

군산 노후산단, 융·복합 스마트단지로 변모

국토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통해 자금 지원·조세부담금 감면 등 규제 완화로 활성화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에 나선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노후한 군산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 미래형 융·복합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됐다.
이 곳 단지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

반시설 재정비와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재생사업(국토교통부), 구도고도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이밖에 산단 관련 경쟁력강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체 자금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용

적률·건폐율 상향,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와 한국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에 처한 군산 산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산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정읍시 신정동에 신축 확정 470억원 투입 2021년 착공

정읍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교육원을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짓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2017년 연구실증단지(교육원(아산시 소재))를 함께 정읍에 짓겠다고 밝혔으나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연구실증단지 건립 공사만 진행해왔다.

전기안전공사는 교육원 이전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곧바로 설계 현상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 2021년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만 6000여㎡ 부지에 건립되며 교육관, 생활관, 다목적교류센터 등을 갖춘다.

교육관은 지상 3층 전체 건물면적 4800㎡, 생활관은 지상 4층 전체 건물면적 7000㎡ 규모다.

470억원의 투입해 2023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전기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와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 업무를 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완공되면 매달 600명가량이 교육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실패 경험 공감하며 응원하는 사회 조성"

'실패박람회' 내일 전주 한옥마을서 개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공감하며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 실패박람회'가 31일 전주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실패박람회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대구, 서울 순으로 열린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가 '실패는 두 번째 기회'를 주제로 한옥마을 일대에서 여는 실패박람회는 국민 속의 토론, 실패사례 공모전, 재도전 정책마당으로 나

뉘며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도 준비된다.

국민 속의 토론은 '문화예술 관련 실패'를 주제로 각 분야의 예술인 3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패사례 공모전'에는 자신의 특별한 실패사례 및 극복 후기를 공유하고 싶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 기간에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내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정책마당'이 펼쳐진다.

정책마당은 재도전을 위한 상담과 함께 창업과 채무, 대학진학, 저소득 일자리,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7시 경기전 광장에서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와 전국단위 실패 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로 이루어진 퍼포먼스, 실패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 등으로 채워진다.

박람회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패박람회 누리집(failexpo.com)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도전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고창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협약

고창군과 고창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창군은 지난 28일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군의회 의장,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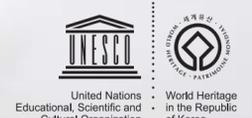
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서에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우선으로 설치·지원하게 된다.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로 많은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시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해남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흥사